

광주 학생 건강검사비 전국 최하위

구강·소변검사비 타 시·도 절반 수준

문상필 시의원 “추경 증액해야” 지적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과 광주지역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학생들의 건강검사 비용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문상필(북구3·사진) 의원은 9일 광주시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학생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건강검사 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낮다”고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구강검사와 소변검사, 결핵검사 등의 건강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강검사 수가는 구강검사의 경우 다른 시도는 1인당 4800원에서 6460원이지만, 시 교육청은 가장 적은 2500원을 지원하고 있다.



15번째로 적다.

문 의원은 “다른 시도는 건강검사 비용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나 시 교육청은 3년째 동결한 상태다”면서 “검사 비용이 적다는 것은 검사 내용의 부실과 직결되는 문제로, 학생 건강검사 비용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고 내실 있는 검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미리 건강 상태를 점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생들의 건강권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소외받아서 안 되며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가장 비용이 낮게 책정된 구강검사의 경우 치료의 사회화 의견을 들어 구강비용을 현실화해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한열 열사 기념비 어루만지는 모친 배은심 여사

앞면에는 ‘198769757922’라는 숫자가 새겨졌다. 6월 항쟁이 일어난 1987년, 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6월9일, 병원에서 사망한 7월5일, 그의 국민장이 치러진 7월9일, 당시 그의 나이인 22세를 함축한 숫자다.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한열동산에서 열린 이한열 열사(광주 진흥고 졸업) 기념비 제막식에서 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헌화한 뒤 기념비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제막한 기념비 앞면에는 ‘198769757922’라는 숫자가 새겨졌다. 6월 항쟁이 일어난 1987년, 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6월9일, 병원에서 사망한 7월5일, 그의 국민장이 치러진 7월9일, 당시 그의 나이인 22세를 함축한 숫자다. /연합뉴스

6·10항쟁 주역 이한열 열사 민주정신 기린다

새 기념비 모교 연세대에서 제막

1987년 6월 전두환 군사정권 규탄 시위에서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목숨을 잃은 연세대생 이한열 열사(광주 진흥고 졸업)의 정신을 기리는 새 기념비가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에 세워졌다.

이한열기념사업회는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한열동산에서 새로 제작된 기념비 제막식을 열고 기념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기존 추모비는 이 열사가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이듬해인 1988년 9월14일 이 자리에 세워졌으나 20여년이 지나면서 갈라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다.

제작은 석재 조각가 이경복 작가와 김동철 명장 등이 맡았으며 이 열사의 연세대 86학번 동문 등 각계에서 후원했다. 기념비는 충남 보령에서 가져온 5t짜리 검은색 오석(烏石)을 원석으로 삼아 높이 약 1.4

m, 길이 약 3m로 제작됐다. 기념비 앞면에는 ‘198769757922’라는 숫자가 새겨졌다. 6월 항쟁이 일어난 1987년, 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6월9일, 병원에서 사망한 7월5일, 그의 국민장이 치러진 7월9일, 당시 그의 나이인 22세를 함축한 숫자다.

기념비가 놓인 바닥면은 완만한 브이(V)자 형태로 약간 구부러지게 설계됐다. 이 열사의 죽음과 6월 항쟁으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음을 상징한다.

이 열사 어머니 배은심씨는 “한열이를 죽인 자들은 지금 잘 먹고 잘살고 있는데 우리 아기 한열이는 기념비가 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들을 여기 가져다 놓기까지 음모로 양모로 도와주신 많은 분께 감사하며 연세대가 없애지지 않는 한 이한열이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도립미술관 입지 다음달 초 결정

도, 동부권 시·군 대상 설명회

전남도립미술관 입지가 오는 7월 초 결정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9일 “10일 오전 11시 전남 동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여수·순천·광양·보성·구례·곡성·고흥 등 동부권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남도립미술관과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018년까지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8000㎡ 규모로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되는 도립미술관 건립사업은 이난연 전남지사의 공약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동부권 7개 시·군의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위치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립 취지, 위치 선정 평가 기준, 제안 신청 방법, 평가위원회 구성·절차, 향후 추진

일정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오는 26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미술·건축·도시계획 분야 대학교수, 국공립미술관 관장, 연구기관 연구원 등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들 평가위원들은 7월 6일부터 이틀간 후보지 현장을 살펴본 뒤 7일 오후 동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제안서를 심사해 1순위를 선정하게 된다.

평가기준은 입지 여건 및 주변과의 조화성, 부지의 개발 여건, 미술문화 활동과 발전 잠재력, 균형발전 기여도, 시·군 및 주민의 협력 의지 등 5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으며 2018년 상반기 준공 및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전남도는 예측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방 정가

박춘수 “재난기금 적립 원칙·기준 없다”

광주시의회 박춘수(남구3)의원은 9일 열린 ‘광주시 201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재난기금 적립이 매년 원칙과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14년까지 265억의 재난관리 기금을 조성, 연평균 14억7000만원을 적립해 왔는데, 올해는 본예산에서 법정 적립액 85억2000만원을 100% 적립한데 이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40억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예



산 편성이 ‘들쭉날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올해는 U대화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KTX 개통으로 시 재정이 유독히 심각한데 재난관리기금을 폭탄 적립해 시재정난을 부추킬 수 있다”면서 “장기적 예산편성시는 매년 꾸준히 평균액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조례 발의

광주시의회 이정현(광산 1)의원은 후계 농업경영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 컨설팅 사업, 권역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등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농업 발전 주제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시책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 후계농업경영인은 농업의 주역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이라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농업 발전 주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CI 서체 15년만에 업그레이드

1억 들여 개발 용역 발주

전남도가 15년만에 상징물과 전용 서체(사진)를 업그레이드한다.

전남도는 9일 “노란 바탕에 영원한 생명력의 상징인 붉은 원, 천혜의 자연보고인 전남을 상징하는 녹색 잎, 바다를 상징하며 해양 지향을 표현한 파란색 띠로 구성된 전남의 CI를 개선하고 전라남도라는 서체를 개발하는 용역을 8일 발주했다”고 밝혔다.

‘풍류와 전통이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전남도의 CI는 지난 2000년 1억2600만원을 들여 개발한 것이다.

전남도는 기초금액 1억1990만원으로 CI를 리뉴얼하고 ‘전라남도’라는 서체를 새로 개발하는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수행기관 선정 방법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해 기술능력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할 예정이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눈노안방담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